

10만 원 지원받고 섬으로 놀러오세요, '2026년 섬 방문의 해' 선포

- 5월 2일(토) 여수에서 '섬 방문의 해' 선포식 개최
- 섬 여행 활성화 위해 섬 숙박 관광객 대상 최대 10만 원 여행비 지원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2026년을 '섬 방문의 해'로 지정·선포하고, 아름다운 우리 섬을 찾는 국민에게 최대 10만 원의 섬 여행비를 지원해 섬 지역 활력을 높인다고 밝혔다.

'섬 방문의 해'는 그동안 저평가된 우리 섬의 관광 가치를 재조명하고, 국민에게 섬 여행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,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.

>> 숙박비 지원과 전용 누리집 운영으로 여행 편의 제고

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(7~8월)과 '2026여수세계섬박람회'(9.5.~11.4.) 기간 동안 섬을 방문해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한다.

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5월 18일 개설 예정인 전용 누리집(www.visitisland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아울러 전라남도는 '전남 섬 방문의 해'를 자체 운영하며 최대 10만 원의 여행비를 지원하고, 한국관광공사도 9월 섬 지역 숙박 할인 행사(숙박 세일 페스타)를 병행해 상승효과(시너지)를 낸다.

>> 섬 주민이 직접 위촉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

행정안전부는 5월 2일(토) 15시,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'2026년 섬 방문의 해' 선포식을 개최했다. 이 자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황기연 전라남도 부지사, 정현구 여수 부시장,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.

특히, 섬 주민들이 직접 위촉한 홍보대사들이 눈길을 끌었다. 개그맨 윤택, 셰프 정지선, 캠핑 유튜버 리랑, 러닝 유튜버 안정은, 가수 안성훈 등은 선포식에 앞서 개도, 하화도, 낭도, 사도 등 여수 지역 섬들을 방문해 주민과 교류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섬의 매력을 직접 알렸다.

윤택은 개도를 찾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, ‘2026여수세계섬박람회’ 부행사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과 지역 주민의 기대를 확인했다. 정지선과 리랑은 하화도에서 섬 주민과 함께 특산물인 부추를 활용한 요리 체험을 진행했다. 안성훈은 낭도에서 섬 주민을 위한 작은 공연을 선보였고, 안정은은 사도에서 ‘쓰담 달리기(플로깅)’ 행사를 열어 섬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섰다.

>> 1인 1섬 캠페인 등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

행정안전부는 ‘2026년 섬 방문의 해’를 계기로 국민들이 섬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추진한다.

참여자에게 ‘전자(디지털) 도(島)민증’을 발급하는 ‘1인 1섬 홍보(캠페인)’를 전개해 여행 성향에 따라 반려 섬을 연결해 주거나 명예 섬 주민 자격을 부여하는 행사(이벤트)도 추진한다. 또한 매년 선정되는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 방문 인증 행사(이벤트)를 통해 섬 여행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.

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우리나라는 3,390개의 아름다운 섬을 가진 다도해 관광 국가로, 각 섬마다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.”라며,

“2026년 섬 방문의 해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섬을 찾아 가족·친구와 함께 특별한 여행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. 정부도 국민이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	책임자	과 장	박유정 (044-205-3530)
	균형발전진흥과	담당자	서기관	정태욱 (044-205-3524)

